

비즈니스 패트론 | 총파업 KB국민은행, 영업점 찾아가 보니

“은행 바꿀까?”...고객 외면한 노사 양측에 불만

노사 합의 결렬...결국 총파업 강행 647개 비거점점포, 단순업무만 가능 파업 소식 알려져 점심 때도 한산 업무 많은 월말 2차 파업 예고 격정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간 8일 오전 10시20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안에 있는 KB국민은행 지점을 찾았다.

은행 출입문에는 파업으로 예상되는 고객 불편에 대한 은행의 사과문과 지점장 명의의 대고객 안내문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지점 안은 의외로 한산했다. 평소라면 본격적인 창구 업무가 진행될 시간이지만,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려는 사람 외에 고객이 거의 없었다.

이 지점은 거점점포가 아니어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자동화기기 사용과 창구를 통한 단순 입출금, 이체 정도가 전부였다. 지점의 청결경찰은 자동화기기 이용 등을 안내하면서 다른 업무는 인근 용산금융센터로 방문할 것을 권했다.

아이파크몰 지점에서 만난 지혜명(33·여)씨는 “자동화기구나 모바일 앱으로 은행 거래를 주로 해 큰 불편은 느

키지 못한다”면서 “하지만 은행원이 임금 문제로 파업해 고객에게 불편을 준다는 점에 불쾌감을 느껴 거래은행을 바꿀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밤새 진행했던 노사협의를 끝내 결렬되면서 8일 KB국민은행 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갔다. KB국민은행측은 총파업 대책으로 전국 1058개 전 영업점을 열고 이중 거점점포인 411개점에서는 주택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은행원의 손을 거쳐야 하는 창구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지사가 방문한 아이파크몰 지점처럼 전체 영업점의 60%가 넘는 647개 비거점점포에서는 정상적인 은행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이파크몰 지점에 이어 찾아가간 용산금융센터. 정상적인 창구업무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거점점포이지만 이곳도 창구 8개 중 3개에 부재중이란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용산점 역시 파업 사실이 알려진 탓인지 고객이 많지 않았다. 용산점 직원은 “원래 오전은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많지 않아 평소보다 고객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가장 손님이 몰린다는 점심시간에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른 직종에 비해 고임금 직군으로 알려진 은행원들이 성과급, 임금피크제 연령, 페이밴드 등을 놓고 파업에 들어간 것에 영업 현장에서 만난 고객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용산금융센터에서 만난 전수일(72·남)씨는 “50년 고객인데 이견이 있으면 협상으

로 풀어야지 은행을 축소운영하는 게 말이 되냐”며 “이런 고객 불편에 대해 기껏 금융거래 수수료나 연체이자 면제만 들먹이는 은행 측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

그러나 최근 금융업계가 온라인·모바일 거래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디지털 퍼스트’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은행원을 통한 창구업무가 예전보다 줄어 걱정보다 혼란은 크지 않았다. 또 파업이 월말이나 연휴 직전처럼 고객이 몰리는 시기에 발생하지 않은 것도 다행이었다. 하지만 아직 노사합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KB국민은행 노조는 31일과 2월1일에 2차 파업을 예고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한눈으로 보는 경제 8일

코스피지수	2025.27	↓	-11.83
코스닥지수	668.49	↓	-4.53
日 닛케이 지수	2만204.04	↑	+165.07
中 상하이 종합	2526.46	↓	-6.63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81	↑	+0.01
환율 (원·달러)	1126.00	↑	+6.00
국내금값 (원/그램)	4만6473.98	↑	+19.21

SKT, 20조 규모 美 방송 솔루션 공략



SK텔레콤이 미국 방송사와 손잡고 20조 원 규모의 미국 차세대 방송 솔루션 시장을 공략한다. SK텔레콤은 미국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와 7일 합작회사 설립과 관련한 협약(사진)을 맺었다. 양사는 합작회사에 각각 1650만 달러씩 총 3300만 달러를 투자해 공동경영에 나선다. 1분기에 출범 예정인 합작회사는 미국 차세대 방송 시장 선점에 나선다. 차세대 방송 표준인 ATSC 3.0 방송 솔루션과 장비를 공동 개발해 올해 내 첫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롯데주류, 베트남에 ‘처음처럼 펄’ 오픈

롯데주류가 베트남 하노이에 소주 ‘처음처럼 펄’ 플래그십 스토어 ‘K-pub 처음처럼(이하 처음처럼 펄)’을 개장한다. ‘처음처럼 펄’은 베트남에서 5년간 연평균 약 28%의 성장세를 보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약 300만병을 팔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과 호감이 높아져 우리 술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더 많은 외국 소비자들이 우리 술을 맛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잔치는 끝났다”...삼성전자 4분기 ‘반도체 쇼크’

영업익 10조8000억원...전분기비 38%↓

삼성전자가 마지막 4분기에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연간 실적으로만 보면 기대만큼의 호실적이지만, 지난해 이전 분기까지 기록하던 거침없는 상승세가 4분기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는 8일 매출 243조5100억원, 영업이익 58조8900억의 지난해 연간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2017년에 비해 각각 1.64%, 9.77%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연간 영업이익 60조원 달성은 실패했다.

무엇보다 4분기 실적 부진이 뼈아팠다. 삼성전자는 4분기에 매출 59조원, 영업이익 10조8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 2017년 4분기에 비해 매출은 10.58%, 영업이익은 28.71%나 감소했다. 고점 논란이 불거졌던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실적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메모리 사업이 주요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하락하고 스마트폰 사업도

경쟁 심화로 실적이 둔화되며 전 분기에 비해 전자 실적이 큰 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사업전망에 대해서는 1분기는 실적 약세가 전망되지만, 하반기부터 메모리 업황이 개선돼 긍정적인 실적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5G·인공지능(AI)·전장 사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칩셋·OLED 등 부품기술 강화 및 폼팩터 혁신, 5G 기술 선도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위동향은, 中 대사관으로부터 감사패

인천-웨이하이, 인천-칭다오 카페리 항로를 운영하는 위동향은유한공사(사장 전기정, 이하 위동향은)가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4일 서울 마포 위동향은 서울 사무실을 방문한 주한 중국대사관 등경 총영사는 전기정 사장에게 양국간 인적 물적 교류에 크게 기여해온 점을 치하하는 의미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위동향은은 한중 수교 전인 1990년 한중 민간합작기업으로 출범해 최초로 양국간 카페리 항로를 개설해 현재까지 화물 257만 TEU, 여객 502만 명을 수송했다. 또한 한중 청소년 문화탐방 등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재범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합격생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주택관리사 교육기관 선택 ‘합격 이후’ 따져라

“교수님의 교재를 현장의 바이블로 활용해서 봅니다. 71세의 늦은 나이지만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인생을 에듀윌로 시작해서 기쁩니다.”

에듀윌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관리 실무 교수이자 취업지원센터의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영곤 교수가 직접 받은 메시지다.

주택관리사는 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소장으로 업무하는 전문 자격 분야다. 가장 큰 장점으로 정년과 나이 제한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일정하고, 70대까지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고자 취득하는 유망 자격증 중 하나다.

하지만 합격 이후 취업이 힘들기로 유명한 자격증이기도 하다. 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이력서·면접 등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어 장문면허에 머무는 합격생들도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노후대비라는 큰 기회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취업, 개업 등 재빠른 노력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합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합격 이후’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자격증 취득 이후 막막함을 호소하는 수험생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에듀윌은 주택관리사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합격 이후 취업을 위한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에듀윌의 사후관리는 ‘합격자 모임’부터 시작된다. 합격생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되는 모임으로 제2회 합격자 모임은 전국 지역학원에서 진행됐다. 동문회 활동 이외에도 에듀윌은 취업지원센터 등을 운영한다.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9	6	8			
1	9	7		8	6			
		3				1		
9	5		6		8			
7			5	2			1	
		1	8			7	5	
4				3				
	7	6			4	2	8	
1		4	7					

	7			9			4	
5		7		3				1
		3		8		7		
	8		4		5		1	
4	6					2		5
	1		9		2		3	
		8		7		5		
1			6		8			3
	5			4			8	

■ 스도쿠정답

9	5	8	6	7	2	1	4	3
8	7	9	1	9	6	1	2	8
7	6	1	2	8	9	4	7	9
9	7	9	4	8	6	1	2	3
1	4	6	2	8	5	9	8	1
2	8	1	9	7	4	7	9	6
6	1	2	7	5	3	8	9	4
3	9	8	4	7	2	7	6	1
4	8	7	9	6	1	2	3	9
9	8	1	6	7	2	7	9	8
3	7	6	8	9	9	2	1	4
4	2	5	1	7	8	8	9	6
8	9	4	2	9	6	9	1	7
9	6	2	7	1	8	9	8	4
7	1	9	5	3	4	6	8	2
6	5	7	4	8	1	8	2	9
1	9	8	2	7	4	7	6	9
2	4	8	9	6	9	1	7	8